|  |  |
| --- | --- |
|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 **2016년 11월 10일**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
| **총 5장** | **담당: 홍보실**  |
| **전화: 02-3701-7349** **02-3701-7377** |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硏, 조영준 교수 초청 아산서평회 16일 개최**

**-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오는 16일(수)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저서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을 주제로 ‘제 11회 아산서평모임’을 개최한다.

정수복 작가의 사회로 조영준 교수가 발제하고, 김문식 교수(단국대), 이헌미 박사(서울대)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모임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후기 왕실의 경제 행위를 들여다 본다. 또한 왕실 소비 구조의 경직성과 왕실에서 이루어진 현금과 물자의 출납 과정 복원 등과 관련해 토론한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는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 /

02-3701-7349)로 **15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프로그램

\*[참고 자료2] 저자 및 도서 소개

\*[참고 자료3] 주요 참석자 약력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 |

|  |
| --- |
| **참고 자료1** |

**제 11회 아 산 서 평 모 임**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조영준, 소명출판, 2016)

일시: 2016년 11월 16일 (수) 6:30pm-9:00pm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주관: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

* 사회: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 발제: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김문식(단국대학교), 이현미(서울대학교)

|  |  |
| --- | --- |
| **18:30~19:00** | **저녁 식사**  |
| **19:00~19:05** | **인사말** |
|  |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
| **19:05~19:10** | **연사자 소개** |
|  |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
| **19:10~19:45** | **발제 및 지정토론**  |
| **발제** **및****지정토론** | **사회자** | 정수복  |
| **발표자** |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
| **토론자** | 김문식(단국대학교) |
| 이헌미(서울대학교) |
| **19:45~20:00** | **휴식**  |
| **20:00~21:00** | **자유토론**  |

|  |
| --- |
| **참고 자료2** |

**저자 및 도서 소개**

****

**조영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HK연구교수로 4년여 근무하였다. 2013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한국경제사 및 한국경제발전론을 가르치고 있다. 고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통한 입체적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 성과를 다수 생산해 왔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 Merchant Communities in Asia, 1600–1980 (Pickering&Chatto, 2014, 공저), 《大韓帝国の保護と併合》(東京大学出版会, 2013, 공저),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시폐(市弊):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아카넷, 2013),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예산•덕산•면천•당진 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공역), 《잡담(雜談)과 빙고(憑考): 경기•충청 장토문적으로 보는 조선 후기 여객주인권》(소명출판, 2013, 공역) 등이 있다.

**\*주제도서 소개**

**조선후기 왕실의 회계 장부를 해부하다.**

이 책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후기 왕실의 경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고스란히 남아 전하는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장부를 속속들이 파헤친 결과,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던 왕실의 내밀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 재정 차원에서 면세의 혜택을 누리던 왕실의 경제 생활은 토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천으로부터의 수입에 기반하여 다양한 물자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영의 실무는 내시와 궁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료 또는 사대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왕실의 창고를 들여다보다.**

1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대상으로 왕실의 재정 운영이 변화한 양상을 살펴본 결과, 왕실 창고의 재고가 점점 줄어 갔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의 격변기에 들어서면, 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갔는데도 조선 왕실의 대처는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비어간 창고를 채워 나간 것은 왕실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체불하는 방법과 각종 물자를 납품하는 상인들에게 외상을 누적시키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상의 타개나 돌파보다는 ‘위기의 전가를 통한 재분배’가 현실화되고 있었으며, 조선말기 왕실은 사실상 ‘거대한 빚쟁이’에 다름 아닌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왕실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 소비 구조의 경직성을 밝히다.**

빚을 져서라도 유지하려 한 왕실의 주요 지출은 제사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 소비였다. 위기 상황에서도 개혁적 대처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이유는 왕조의 제도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직적 재정 운영 때문이었다. 정부 재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조되던 재원 이외에,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기업처럼 예산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그리고 조정과 민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 왕조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수십여 곳에 달했던 내수사(內需司) 이하 각 궁방(宮房)은 1907년에 이르기까지 10여 곳이 남아 유지되었다.

**조선후기 왕실에서 이루어진 현금과 물자의 출납 과정을 복원하다.**

내수사와 궁방은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기관에 해당한다. 각종의 물자가 왕실에 공급되고 그 과정에서 쌀과 현금이 흘러갔다. 기관 안팎에서 조달에 참여하여 활약한 다양한 직책의 인물과, 조달의 각 단계별로 발행된 문서와 기록까지 파헤친 결과, 회계 장부의 작성 및 물자의 집중과 소비에 이르는 전체상이 복원되었다. 종래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조선후기 왕실의 물자 구매경로 및 소통체계가 드러나기에 이른 것이다. 왕실의 운영과 유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서울의 상인조직과 시장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실증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  |
| --- |
| **참고 자료3** |

**주요 참석자 소개**

**발제자**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저서 및 역서】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예산∙덕산∙면천∙당진 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공저)

 『시폐(市弊):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비변사 기록, 조영준 옮김, 아카넷, 2013)

**토론자**

**김문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주요저서】 『즉위식, 국왕의 탄생』(돌베개, 2013, 공저)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새문사, 2009)

 『정조의 제왕학』(대학사, 2007)

**이헌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박사

【주요저서 및 논문】 『사행의 국제정치: 16~19세기 조천 연행록 분석』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공저)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1』(창비, 2009, 공저)

 「반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사회자**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 『응답하는 사회학』(문학과지성사, 2015)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로도스, 2013)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12)